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있어 기관지 내시경의 폐절제 수술전 필수적 검사로서
의의에 대한 재평가

박승준, 김진국, 김관민, 심영목, 이종현, 권오정, 정만표, 이경수

삼성 서울 병원 흉부외과, 호흡기 내과, 진단 방사선과

배경 및 목적 : 기관지 내시경 검사 [Fiberoptic bronchoscopy, FOB]는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 병기 결정에 있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of the chest, CT]와 함께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이다. 하지만, 최근의 영상 진단 방법의 발달은 치료 방침의 결정에 있어서의 기관지 내시경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이에 술전 FOB 소견이 CT에 의해 내려진 외과적 치료 방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즉 의미있는 검사인지를 재판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 1년간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암으로 완전 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수술전 본원에서 CT와 FOB 모두를 시행받은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T만을 바탕으로 정했던 수술 방침과 FOB 소견을 추가하여 내려졌던 실제 수술 방법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FOB는 병리학적 진단에 도움을 준 것 [29/56] 이외에도, CT만으로는 단순 폐엽 절제술을 계획하였던 10 명의 환자에서 주기관지 [main bronchus]에의 중앙 침윤 [7례]이나 중간 기관지 [bronchus intermedius]에의 중앙 침윤의 발견에 의해 확대 수술을 가능케 하였다.

결론 : 영상 의학적 진단 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FOB를 대치할 수는 없다고 보며,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 FOB는 필수 검사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책임저자: 김진국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박승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